

재즈·핑키 팝·플라멩코...광주 밤 수 놓는다

문화전당서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9개국 14개팀 참가...15~17일 열려
푸드존·플리마켓·전시회도

지난 10년 동안 230여 팀의 아티스트, 15만 7000여명의 관객들과 함께한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올해도 세계 음악가들을 초청해 다채로운 음악으로 광주의 밤을 수놓는다.



17일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에 출연하는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로비 리카토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제10회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오는 15~17일 3일동안 개최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광주 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 기간에 맞춰 평소보다 이른 8월 중순에 개최되며, 2010년 이후 9년만에 3일에 걸쳐 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총 9개국 14개 팀이 참가해 클래식, 재즈, 핑키 팝, 플라멩코, 파두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또 세계 각국의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푸드존과 다채로운 기념품이 마련된 플리마켓, 'WMF 10주년 기념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는다. 잔디밭 위에 앉아 즐길 수 있는 극장 1 야외무대 '빅도어 스테이지'는 이탈리아 음악을 기반으로 레게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보엠' (15, 17일)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란 가수 알리레자 고르바니 (15일)의 페르시아 전통음악공연, 이라크 출신 이자 사르자 월드뮤직 페스티벌 감독인 푸랏 콰도

리 (16일)의 공연이 이어진다. 스페인 밴드 '엘 아미르와 플라멩코 메디테라네오 앙상블' (16일)이 플라멩코 음악을 선보이고, 인도 출신 드바시시바 타차리 (17일)의 '슬라이드 기타' 공연, 헝가리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로비 리카토쉬 (17일)의 월드뮤직·재즈·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미디어월 영상 중계가 함께하는 아시아문화광장 'ACC 스테이지'에서도 공연이 펼쳐진다. 아프로 비트, 핑키 팝 등을 연주하는 핀란드-베냉 '헬싱키 코트누 앙상블' (15, 16일), 스페인 '파두' 음악을 공연하는 사라 코레아 (16, 17일) 등이 출연한다. 국내 초청 아티스트도 눈길을 끈다. '빅도어 스테이지'에선 가요·해금 앙상블 밴드 '돌다' (16일)가 푸랏 콰도리와 합동 공연을 펼치며, 베

이스, 퍼커션, 양금을 사용한 국악과 인디음악의 융합을 시도하는 밴드 '동양고주파' (17일)도 무대에 오른다. 'ACC 스테이지'에서는 펑크, 재즈, 힙합, 록, 일렉트로닉 등 각종 음악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밴드 '치카티카 브라스 사운드' (15일), 탱고, 보사노바 등 월드뮤직에 중점을 두고 즉흥 연주 등을 펼치는 밴드 '리베로시' (16일), 신스, 베이스, 색소폰 등 악기로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레트로 트윅' (17일)의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방문자센터 옆 출입구 1번 계단에 위치한 소규모 공연장 '반디 스테이지'에서는 '무드리스 트'에서 선정된 8개 팀의 공연이 진행된다. 무료 관람. 문의 1899-5566.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동주문학상' 31일까지 공모

시집 공모제로...동주해외작가상도

운동주 (1917~1945) 시인은 암울한 일제 식민지시대를 온몸으로 맞섰던 시인이다. 그의 시 '서시'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은 운동주 시인의 시정신을 구현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운동주서시문학상을 제정, 운영해왔다. 1년 간 각종 문예지에 좋은 작품을 발표한 시인을 대상으로 문학상 선정위원들이 작품성 등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금까지 이경림 시인 (2016년), 오태환 시인 (2017년), 전동균 시인 (2018년)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동주해외작가상' 작품도 공모한다. 등단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시인으로 5편 이상의 시(한글)를 보내면 된다. 보낼 곳은 (poemttss@hanmail.net)이며 원고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시상식은 동주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며 상금은 300만원이다. 문의 02-764-8722, 010-8894-87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회째를 맞는 올해는 '운동주서시문학상'이 '동주문학상'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기존의 '운동주서시문학상'과 다른 점은 시집 공모제로 작품을 공모한다는 데 있다. 도전과 열정이 있는 시인발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응모자는 55편 내외의 시(시집 한 권 분량)를 정리해 메일로 발송)을 보내면 된다. 보낼 곳은 (dalssoo@hanmail.net)이며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예심과 본심을 거쳐 수상자가 결정되면 도서출판 '달을 쏘다' 시인선으로 발간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문대통령, 고은주 '그 남자 264' 읽고 작가에 친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은주 작가의 소설 '그 남자 264'를 읽고 작가에 친서를 보내 격려했다고 13일 도서출판 문학세계사가 전했다. '그 남자 264'는 항일 시인 이육사의 생애를 그린 신작 장편소설이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보내주신 소설 '그 남자 264'를 재미있게 읽었다"면서 "육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 한 명이고 특히 그의 시 '광야'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문학세계사는 전했다. 이어 "그런데 소설 내용처럼 나 역시 지금까지 당연히 낯을 광의 '광야'일 것으로 여겨 오다가, 빛 광의 '광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그의



미가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 합류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말한 이후 논란을 보면서 이육사 시인도 의연하였다"고 추னை 말하곤 했는데, 소설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 기뻐했다고 했다. 고은주도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연합뉴스

일렉트로닉 팝 듀오 원보틀, 17일 '보틀라이브' 공연



오는 11월까지 공연 '보틀라이브'를 진행하는 팝 듀오 '원보틀' 공연 모습.

일렉트로닉 팝 듀오 원보틀(One Bottle)이 오는 17일 오후 7시 핑크노이즈(남구 주월동 1274-2번지 A동) 공연장에서 '보틀라이브(BOTTLE LIVE)' 두 번째 공연을 연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19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 모금활동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OST 추억소환 콘서트'를 주제로 진행된다. 초청 아티스트 대구 싱어송라이터 'LIVE O' (라이브 오)와 함께하는 이날 공연은 애니메이션

'어린왕자' 삽입곡 'Somewhere only we know'로 막을 올린다. 영화 '라붐'의 'Reality',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소녀', 영화 'Once'의 'Falling Slowly' 등 다양한 삽입곡들을 원보틀이 편곡한 버전으로 무대에 올리며, 공연 중 곡과 관련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을 함께 상영한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보틀라이브' 공연은 총 3회 예정돼 있으며, 11월 13일 마지막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670-7957.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30일까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된다. 또한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홈페이지 (http://accf.co.kr/) 알림마당(참여마당)에 첨부돼 있는 양식을 다운 받아 아이디어와 기대효과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된다.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결과는 9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인에게 통보한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062-611-204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20대 청년잡지 '광:클' 2호 나와

광주지역 20대 청년들이 만든 잡지 '광:클' 2호(사진)가 최근 나왔다. '광:클'은 바근성(30)씨가 이끄는 청년문화단체 '잡한창작소'가 지난해 9월 필진을 모으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편집장 박동재(25)·임경석(29)씨와 이혜린, 손창민, 조아영, 박성연, 최훈지, 김혜인씨 등 10명이 직접 발품을 팔아 취재하고 글을 썼다. 2호 주제는 '광주 청년 트래블 논하다'로, 다양한 여행 정보와 후기가 잡지에 담겼다. 임경석씨는 광주 영화촬영지 여행코스 '무비트립 인 광주'를 썼다. 5·18을 다룬 '화려한 휴가'와 '택시 운전사' '26년'에 등장한 광주를 다루고 '해어화'의 최



승호 가옥, '위험한 상견례' 이상우 가옥, '상류사회'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소개했다. 광주 20대들의 즉흥여행 커뮤니티 '하루사이'와 '광주 어디 어디 가봤니?' '양림'으로 떠나는 근대여행' 청년작가 최류빈씨의 시 '아닌여행' '남도페스로 광주를 대신 리뷰해드립니다' 등도 지면을 채웠다. '잡한창작소' (동구 동명동 248-2 4층)는 잡지 80부를 무료 배부한다. 문의 010-7442-7325.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